社會學敎育의 課題와 展望

高 永 復
(서울大 社會學科 敎授)

Ⅰ. 社會學 發達의 沮害要因

우리 社會는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의 사회학은 발전적 가치를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社會學者도 있고 또 의식하지 않으려는 사회학자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사회학적 활동은 한국의 사회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모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견의 차이는 무엇이 발전인가에 있는 것이지 발전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고민은 어떠한 발전이 올바르냐를 결정하기 어려운 데 있을 것이다.

사회학을 전공하려고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사회학 속에서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旣成의 사회학에 대해 실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기대하는 해답을 사회학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사회가 해방 후 社會的 再編成의 作業 없이 國家形成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었다고 본다. 이것이 傳統的 타성의 持續性을 용인하여 사회학적 이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구조적 誘因을 위축케 만들었던 것 같다. 建國 直後의 한국적 과제는 民主化였는데 政治家들은 서구적 제도의 모방에만 관심을 두었고 민주화를 위한 인간의 문제를 도외시하였다. 국가가 사회와 구분될 때 사회학은 발달의 기반을 찾는다. 民族國家=社會라는 等式 개념이 지배하고 있고 지배계급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사회학이 발달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 국가를 찾는 일에 바빴고 사회를 찾으려는 노력이 切實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6·25 이후 한국을 휩쓴 미국 문화의 압도적인 영향이었다. 학문적 전통이 전무하다시피 한 不毛地에 미국 사회학이 쏟아져 들어오고 문화적 공백을 外來思潮가 메꾸어 나갔다. 그리하여 先進國的 시야에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풍조를 만연시키고 무비판적인 모방이 되풀이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의미 있는 計量的인 新實證主義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는 사회학적 관심을 좁히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조사=사회학으로까지 오도된 일반인의 인식은 사회학의 발전을 자극한 면도 있지만 또한 歪曲시키는 면도 적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의 稀少性을 들 수 있다. 8·15 해방 이전에 사회학을 전공하여 학문 활동을 계속한 학자가 거의 없었다. 인물중심적으로 운영되던 초기에 이것은 사회학적 인식의 확산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오래도록 사회학과의 신설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사회과학 속에서의 사회학의 위치는 염

세 속에 놓여 있었고 사회학은 自體存立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집중적인 학문 연구의 風土를 形成하는 일을 게을리 하게 하였고 학문적인 求心力과 準據基準을 상실케 만들었다. 이것은 오래도록 한국의 사회학을 방황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학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앞의 요인들의 결과이겠지만 사회학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 各人各色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학을 사회생활 과목과 동일시하는가 하면, 사회과학과 사회학을 구분하기조차 힘드는 知的 혼돈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학에 대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를 공존시켜 나갔고 이것이 사회학도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사회학에 대한 기대의 錯雜性과 학문적 志向의 선정에 있어서의 혼란을 가져왔고 사회학의 현실적 유용성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사회학은 현실에 안주하느냐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느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사회학은 오래도록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였고 학문적 축적도 거의 이룩하지를 못하였다. 즉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도록 低開發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Ⅱ. 社會學의 反省

社會學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 社會의 문제를 사회학이 이론적으로 해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社會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社會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의 理論을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우리의 짧은 歷史에서도 사회학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많았는데 거의 손대지 못하고 지나온 일이 안타깝다.

'60년대는 近代化論爭이 무성했던 시대이다. 사회학은 그 당시 근대화의 모델을 정리하는 작업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근대화 이론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先成長 後分配의 정책에 대해서 그늘진 층의 문제를 강력하게 부각시키지도 못하였다. 중산층 논쟁이 있었지만 사회학은 명확한 해답을 내리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학의 主要對象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회학의 이론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수준으로서 충분한 학문적 업적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近代化=資本主義化라는 정책 지향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시야에서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고 그것은 당연히 사회학의 발언권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7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운동이 시작된다. 또한 사회학 전공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70년대부터이다. 농촌사회학, 사회개발론 등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었고 또한 사회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발상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學問的 對象으로 삼는 것을 기피하는 흐름도 있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한 이론 전개가 있음직한 일이었는데도 政治的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적 현실에서 학문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示唆的으로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학문발전을 위해 불행한 일이었다. 좋은 사회학적 소재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理論的 深化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70년대 중반에 오면 한국화운동이 전개된다. 한국화운동은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찾고 混迷를 거듭한 가치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一連의 시도였다. 외래 사상이 비판 내지 반성의 대상이 되고 한국적 현실을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外來文化志向的인 學界雰圍氣가 조금씩 변형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도 단순한 남의 나라 이론의 소개가 아니라 학자들의 主體的 立場의 천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개입되는 것이지만 한국의 사회과학이 성숙 단계에 들어선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운 징후였다.

사회학에서도 민속이나 국사에 대한 소재 발굴과 사회사적 분석의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社會學徒의 고충은 많았다. ① 기존의 사회학적 훈련으로서는 한국의 古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② 서구화된 시각에 너무 깊이 물들

어 있었고, ③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학 이론을 구성하는 力量이 길러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社會學의 방법론이 사회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 이 시기이다. 數理的 方法에서 理論的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학적 방법론이 검토되었다. 學問的 엄밀성의 提高가 요구되기도 하고 量的 分析方法에서 質的 分析方法으로의 전환이 促求되기도 하였다. 참신한 새로운 이론들이 도입·소개되기도 하고 사회학도들 속에서도 專門化의 추세가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社會學方法論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혀술하게 짜여 있던 사회가 조직화에로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학 인구의 팽창에 따른 사회학도들 사이의 경쟁의 의미도 있다. 또한 時流에 휘말린 사회학의 세속화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도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역사성을 捨象함으로써 사회학의 內閉化를 조장하는 흠을 지닐 수가 있었다. 方法論의 획일적인 틀에 발을 묶어 놓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위축 혹은 견제하는 制動役割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학의 과학성에 대한 內的 成熟을 배양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사회학이 당면한 중요한 딜레마는 전통적 가치와 外來的 가치의 調和問題이었다. 孝行과 敬老思想이 고취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계승이 문제시되자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개념 도식으로 되돌아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기에 이르렀다. 사회학자는 누구나 은연중 이 두 가치 중 어느 하나에 강조를 두기 마련이다.

사회학 속에서도 家族사회학과 組織사회학의 대립이 있다. 傾向性으로 보면 前者는 情緖的 價値를, 後者는 合理的 가치를 두둔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대립된다. 이 두 가치의 대립을 의식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外來的 가치에 대해 전통적 가치가 도전하는 辨證法的 갈등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사회학은 이 갈등을 止揚하는 종합적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70년대말은 또한 統一論議가 활발하던 시기이다. 물론 통일 논의는 정치적 목적으로 유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분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안이함에 반성을 촉구한 계기가 되었다. 통일 논의에는 세대적 가치가 깊이 介入하고 있다. 나이 많은 世代는 기능론적 접근을 하게 되고 젊은 세대들은 構造論的 접근을 하게 된다. 反共을 國是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통일 논의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깊게 이해 관계가 밀착되고 있는 문제이니 만큼 價値自由的으로 다루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파생 효과에 의미가 있었다. 즉 맑스주의 연구에 대한 부분적 개방, 批判理論이나 종속이론에 대한 관심의 대두, 국민윤리 교육의 반성 등은 통일 논의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판이론이나 종속이론은 무서운 속도로 젊은 층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 '80년대초에 오면 大學生文化 속에서 비판적 세력의 논리적 근거로 확산해 간다.

사회학에서도 知識社會學, 比較사회학, 사회사상 등의 영역에서 연구 의욕이 불러일으켜졌고 反省的 사회학, 急進的 사회학, 제3세계의 사회학 등의 흐름이 침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비판성향과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비판이론과의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고도산업사회에서 제기되는 비판이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비판적 지식층이 人間疎外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극복하려는 노력의 發現이었는데 비해서, 우리의 문제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정통성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비판이론에로의 沒入은 부분적인 욕구좌절과 불만감을 위안할 수는 있었겠지만 명쾌한 代案을 줄 수는 없었다. 사회학의 교육내용이 이러한 움직임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었다. 사회학은 언제나 현실에 한발 뒤늦게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의식개혁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복지사회가 장기목표로 제시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과제들인 것이고 사회학 고유의 연구영역인 것이다. 그러나 의식개혁이나 복지사회의 내용은 선량층이 얻고자 하는 것과 일반

대중이 바라는 것 사이에는 그 合意의 폭이 다를 수 있다. 이 해결의 실마리를 사회학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社會指標의 도입은 시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 지표는 한국 사회의 발전 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표들은 이론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나와야 하는데도 이론적 발달 없이 현상적으로만 지적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문제는 이제부터인 것이다.

Ⅲ. 社會學敎育의 課題

사회학의 교육적 필요성은 격증하고 있는데도 사회학의 교육내용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은 잘못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社會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社會學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社會學의 敎育은 사회학에 대한 사람들의 期待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또한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학도들이 다루고 있는 사회학이론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이해·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한 것이냐의 문제이다. 우리의 사회학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前近代性과 現代性이 混在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이론으로서도 설명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학은 아직도 모방적 단계에 있고 더러는 外來的 파라다임에 우리 사회를 맞춰 보려는 無理도 敢行되고 있다. 역사의 뿌리도 깊고 변화도 심한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그러므로 역사성이 결여된 미국의 이론도, 그리고 사회 문제의 주제가 계급에만 한정된 서구의 이론도 적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3세계적 시각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의 사회학은 외국의 이론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주체적인 분석의 틀을 가져야 하고 한국의 현실에 이론 구성의 바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사회학에는 戰略的인 주제가 없다는 점이다. 즉 한국 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과제가 명확히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 연구논문 중에는 가족과 농촌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가족과 농촌의 문제에 사회학이 정력을 쏟으면 미래사회를 이끌고 가는 능동적 역할이 죽기 쉽다. 한국의 사회학자들의 연구 성향은 대체로 百科全書式이다. 구심점이 없는 百科全書式 分散은 사회학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고 나아가 사회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학 발달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또한 국민들의 焦點的 과제가 될 수 있는 주제에의 집중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세째로 한국의 사회학자들은 무엇을 위해 학문하고 있느냐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때로 사회학은 사회학자 개인을 위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학은 社會 全體의 일에 우선적인 關心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社會學 속에는 우리 사회를 再改造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현실에 안주하기를 바라지 않고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농민도 근로자도 그리고 봉급생활자도 모두 그러하다. 이러한 요구를 사회학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학이 상층에만 동조하게 되면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또한 대중의 불만에만 따고 들면 권력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여기에 중하층적 창조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적인 진보와 질서, 이것을 위한 창조적인 학문적 노력이 우리의 사회학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네째로 한국의 사회학은 歷史와 思想의 빈곤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에서 역사와 사상이 결핍된 이론에 집착한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다. 사회학이 역사성과 사상성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남이 던져 준 과제에 대해 下請業을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발전은 인간 의식이 능동화하는 것이지 기술이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이 技術科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풍부한 사회학적 상상력이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배양하는 역사교육과 사상교육이 강화되

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사회학은 統合科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는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도 분화와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사회과학 분야에선 분화는 촉진되고 있으나 통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학문간의 공통 연구는 있지만 그것을 통괄하는 원리가 없기 때문에 개별성을 극복하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기 어렵다. 사회학은 처음부터 종합과학으로서 출발했고 지금도 그 의도를 기본적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학도 이러한 시도를 전개할 때가 된 것 같다. 많은 連字符 사회학이 있기는 하지만 통합과학으로서의 學理가 수립되지 않으면 사회학의 이름을 남용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 문제에 있어 사회학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사회학은 급진주의 이론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어떠한 과격한 이론이 들어와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학문이 제공하지 못하면 사회는 거부반응을 보인다. 젊은 학생들은 급진주의 이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사회학이 이 흐름에 대해 문을 닫아 버리면 비공식적 사회학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하로 숨는 학문이 있게 되고 意思疏通의 왜곡이 초래된다. 어떠한 학문적 지향에도 의미가 있다. 급진주의 이론을 발전적으로 소화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